

##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7차 춘계학술대회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와 과제

###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 자연친화교육접근으로 -

김선월, 김민정, 조형숙

To cite this article : 김선월, 김민정, 조형숙 (2015)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 자연친화교육접근으로 -,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7차 춘계학술대회, pp.69-97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발표

##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

## - 자연친화교육접근으로 -

김선월(세아유치원장)

## 들어가며...

한 할아버지가 있다. 바로 꽃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꽃 한송이를 모자에 꽂고 강아지와 함께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간다. 그 마을은 어두침침하고 범죄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마을이다. 사람들 간에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소통도 없으며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마을이다. 그 마을로 이사 간 꽃 할아버지는 모자에 꽂고 온 한 송이의 꽃을 정원에 심고 돌보며 지속적으로 가꾼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꽃 한송이는 점차 커다란 꽃 정원으로 변해간다. 할아버지의 꽃 정원으로 어두침침했던 마을은 조금씩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간다.

꽃에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할아버지 정원에 물려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할아버지 정원에서 꽃을 얻어가 자신의 공간에 심는다. 어느 새, 마을은 꽃으로 뒤덮였고 알록달록한 꽃 색깔과 향기로 마을은 생동감이 넘친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행복세상 그 자체이다. 꽃 할아버지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을 등지고 강아지와 함께 어디론가 길을 떠난다. 할아버지의 모자에는 예전처럼 꽃 한 송이가 꽂혀져 있다.

위의 이야기는 마크 루디가 지은 『꽃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그림책 이야기이다. 꽃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질문이다. 꽃 할아버지는 왜 남들이 가지 않는 마을로 자진해서 이사

를 가셨을까? 꽃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 할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왜 꽃이었나? 왜 할아버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 가꾸는 일을 홍보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꽃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한 마을을 등지고 왜 길을 떠나셨을까? 꽃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 꽃 할아버지 묘자에 꽃은 꽃은 또 어떻게 사용될까? 꽃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질문에 기초하여 세아의 인성교육 운영의 원칙을 재정리해보고 그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인성교육운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한다.

♣ 꽃 할아버지와 만남을 통해서 재정리된 세아 인성교육운영 원칙

첫째, 꽃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세아의 교육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꽃 할아버지는 생명체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고 계셨다. 특히 자연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 세아의 인성교육도 생명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목적과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양한 교수전략을 모색·적용해야 한다.

셋째, 꽃 할아버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찬란함 속에서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접할 때, 그들의 심장, 마음, 정신 또한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게 되어 유아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Wilson의 말처럼, 세아의 인성교육도 유아들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세상, 그리고 그 관계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교육으로 계획·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꽃 할아버지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마을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인내하셨다. 세아의 인성교육도 유아들의 창조적 행위를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을 중시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인내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꽃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을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 이처럼 세아의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꽃 할아버지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아의 인성교육은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아의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내가 만난 꽃 할아버지는 그림책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셨다. 비록 가상의 인물이었지만 꽃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셨다. 유아들의 사고, 감정, 행동에 감동을 일으키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유아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 자연친화교육으로 접근하는 유아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이란 사람의 품성을 뜻하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공통의 자질이다. 사람은 이러한 공통된 품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의 타고난 본질이나 속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다른 자질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개성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결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인성은 개인적 품성과 공통의 품성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전 생애를 걸쳐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자질을 계발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요구하는 공통의 자질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개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

성교육은 개인적 자질과 공통의 자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큰 결정적인 시기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유아기 인성교육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성은 평생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특정한 시간과 상황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친화교육은 유아의 자아와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다. 자연은 유아들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대상이며, 자연은 각 개체의 고유한 본연성이 어우러져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자연 속의 한 개체가 고유한 본성을 잃으면 전체의 조화는 깨진다. 그리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각 개체들 간의 적응은 다시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자연 하나 하나가 가지는 독특성과 서로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탐색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은 인성교육의 목표와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질서 있고 조화롭지만, 무한히 크고 넓고 복잡하다. 자연의 이러한 거시적인 관계성을 유아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자연을 놀이와 통합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해석이 담겨있는 좋은 내러티브를 선정하여 자연친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자연을 알게 하고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자연의 이야기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나와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유아들이 개성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내면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유아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연친화교육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유치원에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정착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II. 자연친화교육으로 접근하는 유아 인성교육의 목적과 목표

인성교육의 목적과 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방향에 기초하여 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자연친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목적

자연친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인성의 함양

### 2. 목표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 나와 타인의 가치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
-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 형성
- 나와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태도 형성
- 사회적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준수하는 태도 형성

## III. 자연친화교육으로 접근하는 유아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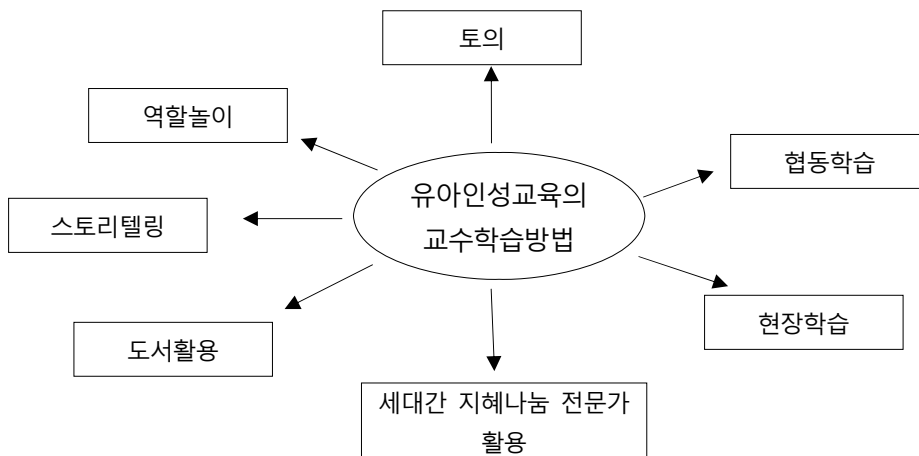
### 1. 유아 인성교육의 요소 및 내용(교육과학기술부, 2011)

- 1) 배려;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공감하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친구, 가족, 이웃, 동식물에 대한 배려 등이 포함된다.
- 2) 존중; 사람이나 사물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존재만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등이 포함된다.

- 3) 협력;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조언 및 조력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긍정적인 상호의 존성, 개인적 책임감, 집단 협력 등이 포함된다.
- 4) 나눔; 자기 스스로 우러난 마음에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나눔의 의미 알기, 나눔을 실천하기, 나눔에 참여하기 등이 포함된다.
- 5) 질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김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기초질서, 법질서, 사회질서가 포함된다.
- 6) 효; 자식으로서 인간된 도리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위내용으로 부모, 조부모, 지역 사회 어른에 대한 효 등이 포함된다.

## 2. 유아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유아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토의, 협동학습, 현장학습, 역할놀이, 스토리텔링, 도서 및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활용 등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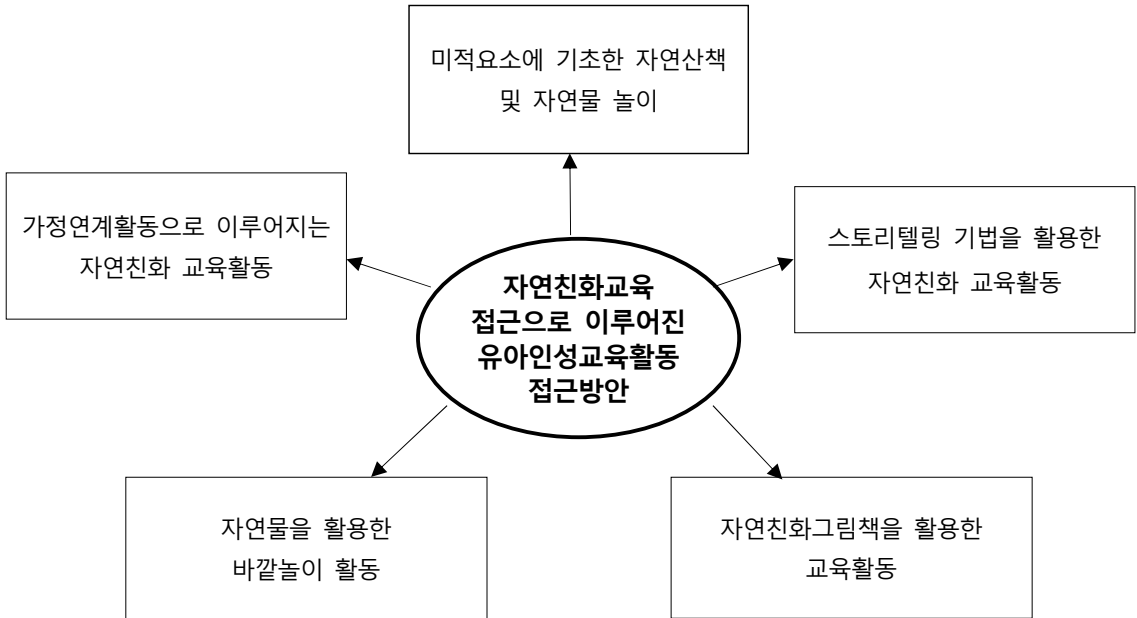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인성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

- 1) 토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유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견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2) 협동학습; 인성교육 내용들이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유아 수준에서 적절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3) 현장학습; 유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습득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다.
- 4) 역할놀이; 유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또는 장면에서 처해보게 하거나 특정 역할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나 가치의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행동의 성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 5) 도서 활용; 유아들의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과 경험, 느낌을 공감하고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갖게 한다.
- 6)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교훈적이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통해 인성 덕목에 관한 유아들이 이해나 사고력을 심화시키고, 감동을 통해 유아들의 실천의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 7)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활용;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들을 교실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 활동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 IV. 자연친화교육으로 접근하는 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유아의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본 유치원에서 세운 교육운영 지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연친화적 교육접근 교육활동의 실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유아의 인성 함양 교육활동의 접근방안

.. (접근 .1) 미적요소에 기초한 자연산책 및 자연물 놀이 >>>

[의미]

- 자연의 아름다움을 미적 요소 - 선, 색, 모양, 질감, 공간에 기초하여 탐색하고 감상하는 자연산책활동으로, 유아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표현력을 기르고, 자연물 속에 담긴 교육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통합적인 놀이로 전개하면서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놀이 속에서 자신의 유능감과 자아감을 기르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활동의 실제]

<자연산책활동의 (예)>

- 활동명: 나뭇가지의 선을 탐색해요.
- 활동목표: 나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선의 특성을 주의 깊게 탐색하고 선의 아름다움을 느껴본다.
- 활동자료: 사진기, 다양한 형태의 나무사진, ohp 필름, 네임펜, 나뭇가지, 넓은 전지 또는 천
- 활동방법:
  1. '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선 산책의 날'이란. 무슨 활동을 하는 날일까?
    - '선'이 뭘까?
    - 우리 주변에서 선을 찾아볼까?
    - 우리가 찾은 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니?
    - 선에서 발견한 또 다른 새로운 점이 있니?
    - 만약 선이 주위 주변에 없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 선이 있어서 좋은 점, 선의 특징과 아름다움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2. 자연산책을 하면서 나무의 미적 특성인 '선'의 특성을 주의 깊게 탐색해본다.
    - 산책을 하면서 나무에서 선을 찾아보려고 한다. 나무에서 어떤 선을 발견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탐색해보자.
    - 나무의 어느 부분에서 선을 찾을 수 있을까?
    - 나무에서 찾은 선을 사진 속에 담아보겠니?
    - 나무가 갖고 있는 선의 특징은 어떤 것 같니?
  3. 산책 후, 나무에서 발견의 선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나무의 선을 탐색하면서 산책을 해본 느낌이 어땠니?
    - 선을 중심으로 나무를 살펴보았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이니?
    - 너희들이 찾은 나무의 선(모양, 느낌, 아름다움, 특징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 나무에서 찾은 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만약 나무의 선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4. 나무의 선을 표상하면서 선의 다양한 특성을 탐색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껴본다.
 

(활동의 예)

    - 관찰한 나무의 선 직접 그림 그려보기/ 유아들이 찍은 나무사진 위에 ohp필름을 올려놓고 네임펜으로 나무의 선 그려보기/ 수집한 나뭇가지로 나무의 형태를 구성하면서 선의 특징 탐색해보기 등

<자연물놀이의 (예)>

- 활동명: 꽃잎은 몇 개일까요?
- 활동목표:
  - 꽃잎의 수를 헤아려보면서 종류에 따른 꽃잎의 수를 비교해보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나뭇잎으로 꽃잎 모양을 만들면서 꽃잎 수에 따른 형태적 특성을 탐색해본다.
- 활동자료: 여러 종류의 꽃(실물과 사진), 꽃잎 카드, 나뭇잎(실물) 등.
- 활동방법:
  1. 꽃을 살펴보면서 꽃잎의 수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이 꽃은 몇 개의 꽃잎을 갖고 있을 것 같니?
    - 꽃잎의 수를 직접 세어보자.
    - 다른 꽃도 이 꽃처럼 꽃잎이 ~장일까?
    - 꽃잎의 수가 같은 꽃을 찾아보겠니?
    - 꽃잎이 가장 많은 꽃은 어떤 꽃일까?
    - 이 꽃은 꽃잎이 많아서 좋은 점은 무엇일 것 같니?
    - 꽃잎이 한 장인 꽃은 무엇이니?
    - 한 장의 꽃잎으로 된 이 꽃에서 다른 꽃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멋)을 느껴볼까? 등
  2. 나뭇잎으로 꽃잎 모양을 만들면서 꽃잎 수의 특징을 탐색해본다.
    - 나뭇잎을 하나의 꽃잎이라 생각하면서 여러 형태의 꽃을 만들어보자.
    - 어떤 꽃모양이 만들어졌니?
    - 이 꽃모양을 만들려면 나뭇잎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
    - (꽃잎 사진판을 제시하면서) 이번에는 사진 속 꽃잎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으면서
    - 꽃모양을 만들어보자. (\* 주사위 게임을 하면서 꽃잎 사진에 나뭇잎을 한 장씩 올려놓으며 수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3. 활동을 회상해본다.
    - 나뭇잎으로 꽃잎을 만들어보는 활동해보았는데, 느낌이 어땠니?
    - 꽃잎의 수가 가장 많았던 꽃은 무엇이었니? 꽃잎 수가 가장 작았던 꽃은?
    - 나뭇잎처럼 꽃잎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연물은 또 무엇이 있을까?
    - 꽃잎으로 또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니? 등

## · (접근 2)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자연친화교육활동



### [의미]

- 스토리텔링 교수-학습방법은 교훈적이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통해 창의·인성 덕목에 관한 유아들의 이해나 사고력을 심화시키고 감동을 통해 유아들의 실천의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나 그림책, 그림, 사진, 광고 등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인성덕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스토리텔링 교수-학습방법은 스토리 감상 및 이야기나누기-탐구하기-연관활동하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활동의 실제]

#### <환경운동가, 왕가리마타이의 이야기를 활용한 활동의 (예)>

- 활동 명: 왕가리마타이와 함께 행복나무를 심어요.
- 활동목표:
  - 자연의 파괴가 가져오는 여향에 대해 안다.
  -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낀다.
  - 무슨 일이든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
- 활동자료: 왕가리마타이 이야기자료-<나무들의 어머니>, 나뭇가지, 나뭇잎, 초록물감, 도화지, 아프리카지도
- 활동방법:
  1. 왕가리마타이 이야기를 감상한 후, 이야기의 내용을 회상해본다.
    - 누구의 이야기였니?
    - 왕가리마타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 자기 나라가 초록세상이었을 때 왕가리마타이는 어떤 생활을 했었니?
    - 왕가리마타이는 행복했었니?
    - 왕가리마타이는 자기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니?
    - 왜 나무들이 없어졌을까?

- 왕가리는 무슨 일을 했니?
- 왕가리를 도운 사람들은 누구였니?
- 나무심기운동이 점점 확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니?
- 왕가리는 왜 감옥에 갇혔니?
- 왕가리는 외롭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 왕가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2. 나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나무는 왜 소중한다고 생각하니?
- 나무가 있어 좋은 점은 무엇일까?
- 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3. 우리주변에 있는 나무를 직접 살펴보면서 나무가 필요한 곳을 찾아본다.

- 우리주변에는 어디에서 나무를 볼 수 있니?
- 나무가 있어 좋은 점은 무엇일까?
- 나무가 꼭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니?
- 유치원에서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 이곳에 나무가 있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니?
- 여름에는 이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니?
- 그늘 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냈니?
- 가을에는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까?
- 이 나무의 모습은 어떠니?
- 그런데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휘어졌을까?
- 나무들이 있는 곳을 따라 걸으니까 어떠니?
- 유치원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니?
- 왜 그곳에 나무가 있으면 좋을까?

4.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붙여 안개그림을 그린 후 오려서 카드를 만들어 아프리카 지도에 행복나무 심기를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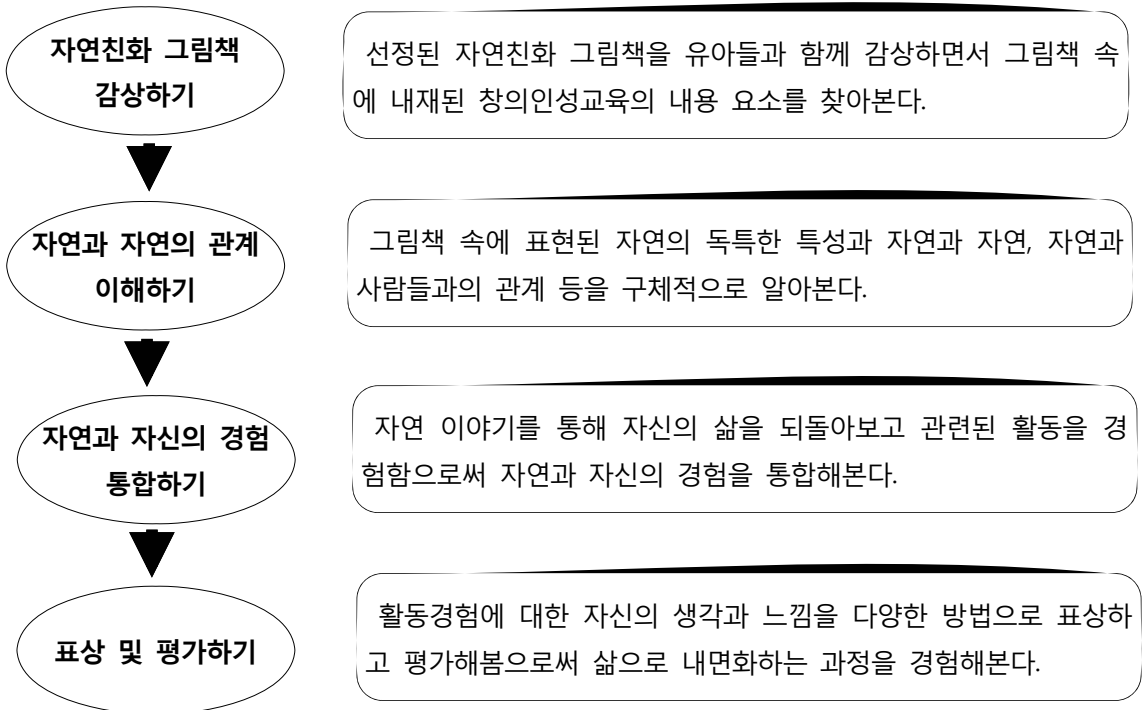
- 유 의 점: 관련활동으로 유치원 주변의 나무 둘러보기, 안개나무 그림으로 지도 꾸미기, 나무 심기 교구놀이, 환경보호포스터 만들어보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접근 3) 자연친화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



[의미]

- 그림책은 유아들의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의 생활과 경험, 느낌을 공감하고 도덕적 판단을 갖게 해준다. 자연친화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생태적 특성 뿐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인성덕목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와 사고력을 심화시키고, 감동을 통해 유아들의 실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자연친화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방법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



[활동의 실제]

<「요술정원」그림책으로 만나는 자연이야기 활동의 (예)>

- 활동 명: 정원 속에서 자연 보물을 찾아요.
- 활동목표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의 종류와 특성에 관심을 갖고 탐색해본다.
  - 관찰도구의 적절한 쓰임을 알고 적절히 활용해본다.
  - 다양한 자연물이 서식하는 정원의 특성을 알고 각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조건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활동자료: 「요술정원」그림책(P.K. 할리난 글, 페트리스 바톤 그림, 황인빈 옮김, 주니어김영사), 안경테, 수집 바구니, 사진기, 구멍 뚫린 종이판 등
- 활동방법:
  1.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감상한 후, 주변 자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본다.
    - 그림책 주인공인 케니와 마이크는 왜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싫어했을까?
    - 너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니?
    - 밖에 나가며 좋은 점은 무엇이고 싫은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 그림책에서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형제에게 엄마가 준 선물은 무엇이었니?
    - 엄마가 준 안경을 쓰고 케니와 마이크는 자연 속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었니?
    - 여러 종류의 자연물을 찾은 케니와 마이크는 어떻게 했니?
    - 새롭게 발견한 자연물을 보면서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 만약 너희들에게도 이런 요술 안경이 있다면 자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니?
    -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자연물이 있을까?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자연 속에는 어떤 자연물이 숨어있을 것 같니?
    - 그러한 자연물은 우리 주변에 왜 있는 것일까?
    - 만약 주변에 있는 자연을 우리가 관심 두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 안경테를 쓰고 유치원주변이나 가까운 공원을 돌아보며 자연을 직접 탐색하고 수집해본다.
    - (유아들에게 안경테를 제시하면서) 자연에서 새로운 보물을 찾을 요술안경이란다. 밖으로 나가서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물을 찾아보자.
    - 안경을 쓰고 자연을 관찰하니 어떤 마음이 드니?
    -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니?

- 왜 전에는 우리가 자연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 또 자연에서 어떤 점을 발견하고 싶니?
- 새로운 것을 더 잘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새롭게 발견한 것을 수집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안경테를 쓰고 새롭게 발견한 자연물을 사진 찍거나 직접 수집바구니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도록 한다.)

3. 수집한 자연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연물의 특성과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친구들이 발견한 자연물을 사진 찍거나 직접 수집해왔단다. 함께 살펴보자.
-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니?
- 유치원 안에서 살펴보니깐 더 발견되는 점은 무엇이니?
- 수집한 자연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이니?(자연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 과학영역에서 자료조사나 실험 방법으로 탐구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우리 주변에 자연이 있어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수집한 여러 자연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자연물이 살았으면 좋겠니?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 우리가 자연물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면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
-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보자. 등 (정기적으로 자연물을 돌보면서 사진 찍기, 관찰그림 그리기, 관찰일지(일기) 쓰기 등으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 변화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 유의점

- 자연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본다.
- (예) 자연물 사진 찍기, 구멍사이로 자연물 관찰하기, 돋보기로 확대해가면서 관찰하기, 자연물과 대화나누기, 자연물로 꾸미기 등



.. (접근 4) 자연물을 활용한 바깥놀이 활동



[의미]

- 바깥놀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탐구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 서로 다른 운동 능력에 대한 인식과 존중하는 과정을 배우도록 돕는 활동으로, 특히 자연의 소재를 활용한 바깥놀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물의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할 뿐 아니라 자연물이 우리의 생활에 활용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활동의 실제]

<자연물 - 마늘쭀로 하는 활동의 (예)>

- 활동명: 마늘쭀 고리 던지기 놀이
- 활동목표: -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조절 능력을 기른다.  
- 자연물을 활용하여 게임도구를 만들어서 놀이에 적절히 활용해본다.
- 활동자료: 마늘쭀, 나뭇가지, 당근, 끈 등
- 활동방법:
  1. 고리던지기 놀이를 회상하면서 놀잇감을 만들 자연의 소재를 탐색해본다.
    - 고리던지기를 놀이를 회상해보자. 어떤 방법으로 놀이를 했었니?
    - 게임도구는 어떻게 생겼었지?
    - 게임도구를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자연물로 고리던지기 놀잇감을 만들어보려고 해. 고리던지기 놀이감을 만들기에 적합한 자연물은 무엇이 있을까?
    - 고리를 만들기에 적절한 자연물은 무엇일까?
    - 고리를 끼울 수 있는 대는 어떤 자연재료로 만들면 좋을까? 등
  2. 준비된 재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고리던지기 게임도구를 만들어본다.
    - '고리 던지기' 게임도구를 만들 자연물재료란다. 어떤 자연물이 있니?
    - 게임도구 만드는 방법에 따라 자연물로 직접 만들어 보겠니?

**<만드는 방법>**

- ★ 당근을 반침대로 세울 수 있게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당근 중앙부분에 구멍을 내서 나뭇가지 끝부분을 끼워서 고리를 걸 수 있는 대를 만든다.
- ★ 마늘쭉으로 동그라미 형태를 만들고 풀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해서 고리를 만든다.

## 3. 게임방법과 규칙을 정한 후, 함께 놀이해본다.

- 어떤 방법으로 게임놀이를 해볼까?
- 고리를 던지는 방법으로 좀 새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게임방법>**

- 주어진 수의 마늘쭉 고리를 자유롭게 던져놓은 후, 대에 놓어진 고리를 수를 비교해보는 게임
- 거리를 달리하면서 마늘쭉 고리를 대에 넣는 게임
- 가위바위보 또는 주사위로 순위를 정한 후, 이긴 사람이 고리를 대에 넣는 게임
- 고리 던지기 게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등

## 4. 활동을 회상해본다.

- 게임놀이에 대한 생각(느낌/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 마늘쭉 고리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니?
- 만약 다른 자연물로 고리던지기 놀이를 한다면 어떤 자연물로 하고 싶니?
- 주어진 게임 도구를 사영해서 다른 놀이를 한다면 어떤 놀이를 더 해볼 수 있을까?
- 함께 정한 규칙은 잘 지켜졌는지 이야기해보자. 등.

**.. (접근 5) 가정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친화교육활동****[의미]**

-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높여서 협력적인 관계로 유치원에 이루어지는 자연친화교육 경험을 보다 심화시키고 이를 유아들의 삶으로 내면화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 연계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가정 연계 활동의 한 예로 부모참여수업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계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의 실제]

**<부모참여수업으로 이루어진 자연친화교육활동>**

○ 참여수업 주제: 자연물과 함께하는 오감놀이, 행복세상!  
○ 참여수업 활동의 (예)

**보아요!**

- 하늘, 땅 정원을 산책해요.
- 야차가 만들어 내는 디자인 세상
- 나도 세잔!
- 돌멩이 놀이터

**그리고...**

**들어요!**

- 소리가 주는 즐거움
- 들리지 않는 소리
- 소리 이야기(움직임, 모양)
- 우리가 만드는 소리이야기

**그리고...**

**느껴요!**

향기 이야기	촉감 이야기	맛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기 주머니</li> <li>- 향기 산책길</li> <li>- 그림 속의 향기</li> <li>- 내가 만든 향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촉감 텃밭나라</li> <li>- 내 몸은 촉감도구</li> <li>- 그림 속의 촉감</li> <li>- 촉감 텃밭나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한 맛, 재미있는 맛, 행복을 전해주는 맛!</li> <li>- 나도 푸드스타일리스트!</li> <li>* 「<u>깻잎 오감놀이</u>」 이야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고...</b></p>

나가며...

자신의 몸짓으로 나무의 아름다운 형태를 표현해보고, 내가 표현한 나무와 친구들이 표현한 나무의 그림자를 하나씩 연결해가면서, 세아의 아이들은 하나의 커다란 ‘우리만의 나무’를 새롭게 만들어 보았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존재이지만 함께 모이면 커다란 또 하나의 나무를 만들 수 있음에, 아이들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함께 함!’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아유치원에서 기대했던 인성교육의 효과이자 의미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 김선월(2012).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화(2009). 반응 중심 문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숙(2013).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 박순정(2013).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희 외(2011).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아의 창의성과 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시설여건을 고려한 유치원 바깥놀이 운영.
- 손지현(2013). 시각문화 읽기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조형교육 제47권.
- 이상금(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 현은자 외(2005). 그림책의 이해 I II. 사계절.

### <그림책>

『요술정원』. P.K. 할리난 글, 페트리스 바톤 그림, 황인빈 옮김, 주니어김영사.



## 토론 1

##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자연친화교육 접근으로-’에 대한 토론

김민정(창원대학교 교수)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특히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가정과 학교교육 모두 성인(聖人)의 도(道)를 구하는 이상적 인간상 실현에 초점을 맞춘 ‘사람됨’의 교육을 강조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람됨’은 사람의 성품 곧 ‘인성(人性)’이라 할 수 있다.

인성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성취하고 도달해야 할 인간의 자질과 품격(김영옥, 2014)으로 정의된다. Berkowitz와 Grych(2000)는 인성이라는 용어 속에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본질적인 의미의 ‘인성’은 물론, 이러한 인성이 발달하면서 복잡하게 분화된 이성적 성향인 ‘인성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인성은 타고나는 것인 동시에, 계속해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성의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적절한 방향의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중략)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등의 구성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의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유아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왕따, 학교폭력, 군내 잔혹행위, 정치권의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 등을 통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자 역시 최근에 접한 한 어린이의 시

(詩)와 그에 대한 사회적 과장을 신문지상을 통해 접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겨냥해 출판된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 『솔로강아지(도서출판 가문비)』’라는 동시집에 수록된 ‘학원가기 싫은 날’이라는 동시 때문이다. 동시의 내용은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깔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훔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가장 고통스럽게”이다. 동시 전문을 따라 한 여자어린이가 쓰러진 여성 옆에 앉아서 입가에 피를 묻히고 심장을 먹고 있는 삽화까지 그려져 있어 논란이 일었다.<sup>1)</sup>

이를 접한 독자들 대다수가 어린 시절 세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마에 대해 아이가 갖고 있는 섬뜩한 공격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 또 이 시를 수상하고 출판한 어른들의 생각과 인품에 대해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물론 ‘아이가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하는 동정론, 반성론도 있었고, ‘아이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 대해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에 출판사에서 시집전량을 폐기하기로 하며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교육하는 사람으로, 부모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토론자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당혹스러웠다. ‘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열심이었는가?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은 과연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 깊은 회의감과 함께 밀려들었다. 동시에 유아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바람직한 접근이나 구체적인 실제에 대한 갈급함과 불안감이 일었다. 그래서였는지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역량의 실태와 과제’라고 하는 본 학술대회가 반가웠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라는 주제 발표 역시 감사함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주제 원고 검토 후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자연’을 유아인성교육의 주요한 장으로 접목시킨 발표자의 의도에 깊이 동의한다. 자연(自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일적이지 않은 훌륭한 교과서이며,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이며(윤구병, 1999), ‘스스로 그러한 것 혹은 그러한 상

1) 해당 동시의 전문을 자료집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소 염려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의 민낯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문을 소개함은 물론 동시집의 삽화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태'이다. 즉, 자연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인정'이며 '개별 존재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자 존중'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Jung이 인성의 구조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궁극의 목적인 자기실현 즉, 개성화의 경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을 자연과 만나게 해준다면, 나아가 소통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자체가 곧 인성교육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자연친화교육'을 통한 접근은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간 균형감 회복 및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발간된 305편의 유아인성교육프로그램 관련 논문을 분석한 김치곤과 채영란(2013)에 따르면 관련 연구는 누리과정이 고시된 2012-13년에 급진적인 증가를 보인 것을 포함하여 꾸준한 증가세에 있어 최근 활기를 띄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유형에 있어, 사회생활, 언어생활, 표현생활과의 통합은 각각 27%, 26%, 20%인 반면, 탐구생활과의 통합은 13%로, 수학이나 과학과의 통합으로 인성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영역 간 불균형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발표자가 수행한 자연을 통한 인성교육은 연구가 필요한 탐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소수의 연구자들(김규수, 박미정, 2013; 김지희, 2015; 박성혜, 김태인, 2011; 우정민, 2014; 유정하, 2014)에 의해 시도되는 초기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활동들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환경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성교육의 영역 간 통합 및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유아인성교육활동의 접근방안으로 '미적요소'를 고려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미적요소' 즉,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친화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가치로운 개념들이 많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인성교육의 다양한 접근방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미적인 요소에 대한 집중은 아이들의 마음결에, 자연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변화시킨 꽃 할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찬란함 속에서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접할 때, 그들의 심장, 마음, 정신 또한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게 되어 유아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에 공감을 표한다.



넷째, 발표자가 제시한 유아인성교육의 접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원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발표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준하여 유아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을 ‘토의, 협동학습, 현장학습, 역할놀이, 도서활용, 스토리텔링,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활용’의 7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결하여 ‘자연친화교육접근으로 이루어진 유아인성교육활동 접근방안’으로 ‘미적요소에 기초한 자연산책 및 자연물 놀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자연친화교육활동, 자연친화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 자연물을 활용한 바깥놀이 활동, 가정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친화 교육활동’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간에 상호연관성이 무엇인지 원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이들이 상호 연관된 부분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재구성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또 생략되거나 추가된 교수-학습방법들이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가정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친화 교육활동’의 실제로 부모참여수업이 제시되어 발표자가 수행한 가정연계의 본질적인 내용을 예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인성교육과 자연친화교육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인성교육이나 자연친화교육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모델링의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한 안내, 자연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이들과의 발문에 대한 사전적이고도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내용상으로는 부모참여수업이라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연계의 형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정연계의 형식(부모교육, 자녀와의 활동 등) 및 각각에 대한 대략의 계획이나 내용 등이 소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술한 대로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발표자의 원고에 국한된 것으로 수업의 실제와는 별개의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발표자의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러한 의문이나 아쉬움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자연친화교육’과 ‘유아인성교육’의 전문가인 발표자가 고민하고 실행한 귀한 결과물을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원고 서두에 소개한 ‘생명체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알

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누구가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감동적인 존재'로서의 '꽃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된다. 그리고 부모-자녀, 교사-유아, 유아-유아...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을 통해 이처럼 감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 및 연수자료집.
- 김규수, 박미정 (2013). 자연친화적 활동 경험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359-387.
- 김영옥 (2014). 유아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공동체.
- 김지희 (2015). 유아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자연 친화적 태도와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곤, 채영란 (2013).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7(6), 305-333.
- 박성혜, 김태인 (2011). 생태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 경험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5(2), 341-368.
- 우정민 (2014). 자연놀이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 과정.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하 (2014). 자연체험활동이 유아의 인성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구병 (1999). 잡초는 없다. 서울: 보리출판사.
- 이택광 (2015. 5. 8일자 경향신문) '잔혹동시'가 환기시킨 것.
- Berkowitz, M. W., & Grych, J. H. (2000).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 55-72.



## 토론 2

##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자연친화교육 접근으로-’에 대한 토론

조형숙(중앙대학교 교수)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전인발달’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양상에 따라 보다 강조되는 교육덕목이 있다. 유아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과 내용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제시하는 ‘창의’와 ‘인성’교육이다. 그 이유를 다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든다면, 뇌 과학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전두엽’이라는 대뇌피질의 한 영역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유아들의 경우 전두엽이 다른 대뇌피질 영역에 비해 활성화되는 시기임을 밝혔다.

전두엽이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 판단에 기초한 인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인성교육을 통해 전두엽이 활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시기에 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도 전인발달을 도모하는 가운데 특히 ‘창의’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은 누리과정의 전 영역(의사소통영역, 신체.운동 건강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영역)에서 연령별 세부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누리과정에서는 특히 ‘배려’, ‘협력’, 그리고 ‘존중’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김영옥(2014)은 이야기나누기와 토의하기, 동화와 동시 활용하기, 미술 협동활동, 신체활동 및 게임 활용하기, 역할놀이와 극놀이하기,

현장학습, 부모지원과 상담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사람과 자연 경험하기를 제안하였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 가운데 ‘다양한 사람과 자연 경험하기’를 통한 인성교육이 유아에게 적합하며 가장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는 세아유치원의 인성교육 사례를 소개한 주제발표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발표자는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친화교육 접근의 의의를 유아가 자연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 하나 하나가 가진 독특성과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탐색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배려, 협력, 존중과 같은 덕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점에 대해 토론자는 동의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의 교수원리가 경험의 원리, 통합의 원리 등을 강조하는 이유가 유아는 설명으로 듣거나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보다 직접 경험하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체감하는 가운데 추상적 개념이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은 여러 교과 관련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실제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의도한 교육개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이라는 매체는 자연의 실제적이고 복합적인 생태적 삶의 장면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에게 배려, 협력, 존중의 인성덕목을 적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를 통해서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은 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다음과 같다.

‘북극곰’이라는 다큐식 영화를 돈을 내고 극장에서 본 적이 있다. 지금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기억에 생생한 한 장면 때문이었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여름이 길어지고 얼음이 얇아지자 북극곰 가족의 먹이가 빙판위에서 사라지게 되고 초조한 어미 곰이 오랜만에 발견한 바다표범 새끼를 육중한 몸을 움직여 잡으려 하자 바다표범 어미는 새끼를 낚아채고는 차가운 북극 바다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란 새끼 표범들을 껴안고 바다 윗부분에 둥둥 뜬 채로 젖을 먹이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돌봄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떠오른 생각은 유아들에게 자연이 살아가는 곱고 아름다운 생태적 삶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00하면 안되지. 00해야지요?” 하는 식의 교육에 비해 효과적일 뿐 아니라 유아들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가치 교육이자 인성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토론자는 ‘자연 생태 사진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과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토론자에게 주제 발표내용은 특별히 찬반의 의견을 내놓을 이유가

없이 자연친화적 경험의 제공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접근과 사례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아 유치원의 자연친화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소개한 내용은 그 중 어떤 부분을 소개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환경이 자연친화교육에 최적화된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속에서도 충분히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사례를 제시해 준 점이 가치로운 점이라고 본다. ‘자연에서 놀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협력적인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친화교육 접근을 통한 인성교육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바이다.